# 보유 기술

- · Backend Engineering
  - Python, Numpy, Pandas 를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 Matplotlib, Seaborn 를 이용한 데이터 분포 시각화
  - Hiseoul YOLO 프로젝트의 Rest api 구축을 위한 Docker, Postgres DB 서버, Spring Boot 환경 구축 및 수행 경험
- · Frontend Engineering
  - Hiseoul YOLO 프로젝트의 웹페이지 구축을 위한 HTML5, CSS3, Javascript 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React 프레임워크 활용
  - · Machine Learning & Deep Learning Engineering
  - 초급 AI 개발자 5 개월 교육 과정 프로젝트를 통한 머신 러닝, 딥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보유

## 프로젝트

Hiseoul YOLO - 2022/01 ~ 2022/04 현재

**Spring Boot Code:** 

https://github.com/cptksh0710/hiseoul ml project

ReactJS WEB-Page Code:

• CCTV 화면 내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를 ML 을 통해 count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 분석하는 웹사이트, DB 구축

### 웹스크래핑 프로젝트 – 2022/03

#### Code:

https://cptksh0710.github.io/dashboardtest/my-profile.html

- 갤럭시 S22 나무위키 스크래핑/한글 분석
- ITworld 모바일뉴스 스크래핑/ 한글 분석

# 이력

2007.03 ~ 2013.02 한신대학교 컴퓨터정보소프트웨어학부 (자퇴)
2013.03 ~ 2016.02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소프트웨어학과(졸업)
2021.11 ~ 2022.04 초급 AI 개발자 실무역량 강화교육 국비교육과정



김 상 훈

연락처

010-9962-3135 cptksh0710@gmail.com https://github.com/cptksh0710 소방공무원이신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시절까지 여러 번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때 가정마다 인터넷이 보급이 되었고 스타크래프트 등과 같은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 장비는 물론 sw, 네트워크 환경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자주 바뀌는 생활 환경 속에서도 컴퓨터와 게임이라는 공통분모로 쉽게 친구들과 친해지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 컴퓨터는 저의 학창 시절에 외로움을 달래준 고마운 존재이자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옆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해 나가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 sw 의 새로운 정보나 신기술 등이 전해지는 날이면 밤을 새워가며 알고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대학 전공을 SW 관련 학과로 진학하였지만 부모님의 의료기기 사업시작과 운영 어려움으로 대학 생활에 전념하기 힘들어져 학점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했고 결국 졸업 이후 관련분야 취업을 포기하고 최근까지 부모님 사업을 도왔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직원 임금관리 문제 때문에 늦은 나이에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 때 전공에 투자한 시간과 놓친 기회들에 대해 아쉬움이 커서 다시 IT 계열 취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성격 및 장단점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자 하는 마부위침의 자세 칠전팔기의 도전정신과 사막의 햇볕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SW programmer 를 꿈꾸는 자. 목표한 대학교로의 편입을 위해 2 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결국 합격할 수 있었고 작년에 건강관리에 소홀해 "궤양성대장염"이라는 질병과 비만으로 고생할 때에도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토록 바라는 SW 전문가는 한낱 꿈이라는 걸 깨닫아 지금도 매일 하루 10Km 씩 집에서부터 강의장까지 걸으며 아프기 전 몸무게를 유지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목표를 향한 인내와 노력은 SW programmer 로서 귀사의 확실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해 흘린 땀의 양만큼만 수확을 기대하는 시골 농부의 소박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정직한 마음이 가진 인재가 바로 저입니다.